

# KAIST Aeroacoustics Lab. Newsletter

발간호 1호 (2014년 1월)

홈페이지: <http://aeroacoustics.kaist.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146891972035622/>

담당자: 추연복, 실험실 총무; 박민준

## ● 교수님 인사



안녕하십니까? KAIST에 1988년 1월 1일에 부임한 후 25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졸업생 여러분 덕분에 KAIST에서 Aero-acoustic(공력음향학)이라는 생소한 과목을 소개도 하고 실험실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보석 같은 청춘을 바쳐서 실험실 업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KAIST 는 이러한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분위기이며 더 나아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KAIST 문화에도 감사 드립니다.

실험실에서 공력음향학분야는 헬리콥터, 우주 발사체 제트, 우주정거장, 터보 팬 제트, 오픈 로터, 덕트 무인기, 틸트로터, 스텔스 기술, 극초음속 음향하중, 중형항공기 등 항공우주 전분야 에 거쳐 공력음향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잠수함, 선박, 고속철도 등 교통 분야와 가전, 전자 제품 등 수출을 이끄는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공력음향분야에도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수행을 위해 새로운 기법들이 개발되었고 공력음향 풍동도 세워졌습니다. 아마도 전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요사이 는 항공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기술면도 새로운 것이 발견되며 더 많은 원인이 되는 인적 요소 면에 도 공학적으로 접근하여 사고를 감소시키는 과제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국가사업이 많았고 성공도 하였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엔지니어 자체에 대해 국가나 연구소나 학교에서도 관심이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결과로 사업은 성공 하였지만 이공계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분야간의 소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더욱 다른 기술에 대한 서로의 이해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같은 분야, 같은 졸업생 그리고 같은 실험실 학생들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작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실험실 졸업생들 하기의 소통과 이해에 대한 시도로 뉴스레터도하고 홈페이지와 페이스북도 활성화 시키려 합니다. 이는 실험실 학생들 간의 기술에 대한 소통도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靑馬가 갑자기 부상했습니다. 존재하지 않지만 푸른 꿈을 물고 가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하늘과 소통하는 동물이 말이라 합니다. 실재로 존재한 관우의 적토마는 하루에 천리를 달렸고 관우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말 해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역동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월 27일 이 덕 주

● 연구실 소식

- 신입생 및 신입 연구원 : 김사지(박사과정), 이학진(박사과정), Amelda(박사과정), 안명환(석사과정), 박상하(학부4), 장원근(학부4)



[김사지]

[이학진]

[Amelda]

[안명환]

[박상하]

[장원근]

연구실 송년회



[리오데자네이루]

구삼옥박사 초청강의



[TJB 방송국 세미나실]

겨울 워크숍



[무주리조트]

- “무인기에서 미래 비행체로” 라는 주제로 열강을 해주신 구삼옥 박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연구실 재학생 모두가 참석해 무인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졸업생 소식



이재규 - 오늘 모처럼만에 실험실 연말 산행...어머님 품과 같은 광고산을 벗삼아 실험실 선배님들과의 산행이 즐거웠다... 하산 후 시원한 막걸리 한잔과 나눔의 이야기들... 오래도록 기억 속에 머물 것 같다... 2013년도가 이렇게 지나간다... -광고산 산행-

출처: Facebook 2013-12-07



장지성 - 어제 갑작스럽게 우람이와 세환이가 울산에 놀러 와서 동해바다 앞 펜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분들도 울산오시면 연락주세요. 치훈이형과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출처: Facebook 2014-01-05